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태호, 김미순선교사가정 선교소식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파라과이 이태호선교사입니다. 변함없는 큰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파라과이 선교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교사님! 저희 파라과이 사람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인으로 부터 들은 말입니다. 이제 9 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곳 선교사역입니다.

때로는 후원교회와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곳 선교지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곳에 뿌려놓은 지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상받는 것 같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지인들로 부터 이런 감사의 표현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 학교소식

학교를 바라볼 때 마다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마치 눈으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듯한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때 마다 말문이 막힐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은 것 같이 주님의 품안에서 매년 성장해가는 학교를 바라봅니다. 불과 4-5 살 밖에 안된 유치원생들을 포함하여 조회 후 4 번에 걸쳐 학년별로 드리는 채플을 대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자세, 올 초 처음 시작한 수업 전 큐티시간(Bible Time) (초 4 학년부터 고 3 까지), 큐티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금요찬양시간이 되면 학교건물이 떠 내려갈 듯이 목청껏 찬양하는 학생들.... 이 학교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학교”로 준비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1 학기는 저희 학교가 이 지역에 더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 주관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가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이기에 이 나라 교통부, 및 도청, 시청에서 후원을 해주었고 이곳 지역 TV 방송국 및 신문사에서 취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중 2 학생이 골수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 개인이 부모로 부터 선물받은 사륜구동 미니오토바이를 경품으로 내놓아 수술비를 모은다는 선행이 이곳 지역에 알려지게 되어 학교로 방송국이 방문도 하였고 지금도 매일 이곳 지역 유력일간지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남”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저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고 3 들은 한 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해 전체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파라과이 문화 축제



파라과이 문화 축제를 마치고



국립기념일 행사



유치원발표

2. 교회사역

지난 8 년 동안의 사역이 학교와 교회사역중 학교중심 사역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학교와 교회사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중심의 사역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영광 현지인 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준비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수요기도회에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일조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마다 성찬식과 점심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수요기도회에는 기도시간에 안수기도를 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자 파니(Villa Fany)라는 지역에서 6 개월째 주일 오후마다 어린이 전도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30 여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모이고 있고 미래적으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선교의 주목표가 개혁주의 교회 개척이기에 교인들 중에 제자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8 월부터 직분자 준비 성경공부와 설교준비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주영광 현지인 교회가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그때를 위해 많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3. 김상원선교사 가정

올 2 월초 저희와 협력하기 위해 온 김상원선교사 가정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노안이고 김선교사가 동안인지라 김상원선교사를 "한국에서 온 제 아들이냐"고 많은 학생들이 물어도 봅니다.^^

젊은 부부이지만 마음의 중심과 기본이 잘된 가정이라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화적응, 언어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에 불구하고 주일예배 설교, 학교채플 설교, 금요찬양팀 책임자,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선교사도 제 아내와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고 두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선교사 가정과 이곳 현재사역과 미래사역등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절한 바램은 이곳 사역이 한세대에서 시작하고 한세대에서 마치는 사역, 후임사역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사역을 철수하는 사역이 아니라, 다음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김진호 계속영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학교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뒤로 오게 될 많은 준비된 후배선교사들을 통해 더욱 이곳 사역이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 역시 선배선교사님 가정이 본을 보여주신 것 처럼 저희 때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저희 후임 선교사들 때에 더욱 더 건강하고 튼튼한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씨뿌리는 사역을 할 것이며 계속 이 사역이 다음세대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상원 선교사 가정 뿐만 아니라 후에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될,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교내 과학경시대회



고2 교통안전 캠페인



고2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방송 (고2대표와 고등학교 교장 참석)



고3 양로원방문

Buena respuesta al sorteo solidario a favor de un niño con cáncer

Tal como lo prometí, el sábado pasado Camilo Silveira (12) estuvo vendiendo boletas para el sorteo de su cuasiación, con la finalidad de ayudar a su amigo Darío González, que necesita de una prótesis que cuesta unos Q. 44 millones. El chico estuvo en el centro y recibió la ayuda de muchas personas.



중2학생 선행관련 신문기사



주영광교회

4. 가족소식

한국에서 수술 치료 후 6개월 만에 이곳 선교지에 돌아온 김미순 선교사는 항상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내의 빈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 학교사역도 더 안정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김미순 선교사는 12월 중순 즈음에 정기검진 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도 역시 여건이 허락되면 제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들 영광이는 열심히 장로신학대학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순시온에서 "전도사"로 현지인 교회를 섬기며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곳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가서 군대 마치고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할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고 목회 훈련받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는 이번에 피아노 실력을 인정받아 다니는 대학교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저희 주영광 현지인교회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5. 기도제목

/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이 부족함에 따라 미니 학교운동장(12mx 21m)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앞에 내년부터 함께 사역하게 될 현지인 목회자 가정을 위해 방 두 칸 자리의 작지만 아담한 목사사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현지인 목사가정 고소건

전에 저희 학교 사역을 봉사하던 현지인 목사 부부가 학교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으나 교회안에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등, 목회자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많은 행동을 저질러서 사역을 그만두게 했는데 저희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학교, 교회사역을 하면서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이 나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 하는 것이기에 서류상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마음 아픈 것은 일 만약의 뿌리인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이 현지인 목사가정이 불쌍할 따름이며 다시 한번 현지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소 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지금까지 이곳 저희 사역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바른 선교사 가정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세르(CER) 미션스쿨 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가 바르게 성장케 하소서.
3. 지금 일어나는 "주영광 현지인 교회"의 영적 순척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4. 학교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준비된 말씀들이 되게 하소서
5. 학교, 교회, 가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소서
6. 초기 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신 김진호, 계속영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7. 김상원(김진경 히엘 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이 언어, 문화적으로 잘 적응하고 미래의 선교사역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8. 한국에서 항암 치료하고 돌아온 김미순 선교사를 지켜주소서
9. 이태호선교사가 바른 리더쉽, 영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0. 공부중인 이영광, 이크리스티나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



주영광교회 성찬식



수요기도회 후 여성도들과 함께



미니운동장 건축



비자파니 어린이전도 모임